

아이야 일어나라

⁴⁹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⁵⁰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⁵¹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⁵²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⁵³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⁵⁴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⁵⁵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⁵⁶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눅8:49-56)

그리고 같은 이유로 주님은 고

향에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으셨는데요,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영유아 시절부터 보아왔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주님에 대한 저들의 생각, 곧 그 어린 시절을 우리와 함께 보낸 예수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실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한은, 주님은 사람 안에 전능하신 주님(*Divine omnipotence*)으로 계시실 수 없으십니다. 신앙은 그가 가진, 주님에 대한 퍼셉션 퀄리티(*the quality of the perception*), 즉 주님이 과연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지각하는 만큼만 주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계시실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시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을 만지실 수 있게 하려면 신앙으로 주님의 신성(*the Lord's Divine*)이 사람 안에 있도록, 사람 밖이 아닌, 사람 안, 내면에 계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AE.815:8) *And f*

‘아이야 일어나라’

or a like reason the Lord could not do miracles in His own country, for there they had seen Him from infancy like another man; and therefore they were unable to add to that idea the idea of His Divinity; and when that idea is not present while the Lord is present, He is not present in man with Divine omnipotence; for faith presents the Lord as present in man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 perception of Him. Other things man does not acknowledge and therefore rejects; for in order that the Lord may operate anything with man by faith the Lord's Divine must be present in man, and not outside of him. (AE.815:8)

이 내용은 스페덴보리 저, ‘계시록 해설’(Apocalypse Explained) 815번 글 8번째 항 인용이며, 이 글은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And I saw another beast coming up out of the earth,)

에 관한 속뜻 주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까닭은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본문 49절입니다.

⁴⁹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직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당장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대신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시험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는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끊임없는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딸'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것은 회당장 스스로 '아, 나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 의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진리를 포기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 사람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를 나타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진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자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⁵⁰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회당장의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그 정도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51절입니다.

⁵¹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회당장의 의지 안으로 임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집은 회당장의 의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
 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
 보’는 각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인애(仁愛, charity)의 행
 위, 그리고 인애 그 자체를 나타
 내며,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의 선
 을, 어머니는 교회의 진리를 나타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집
 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주님이 우
 리의 의지 가운데 들어오실 때
 선을 동반한 진리 또는 인애를
 동반한 믿음으로만 오신다는 뜻
 입니다. 믿음만 있고 인애가 없거
 나, 또는 진리만 있고 선은 없는
 그런 것은 주님께에서 나오는 것
 이 아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것들은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
 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
 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의
 지 가운데 그렇게 주님만 계실
 때,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2절입니다.

⁵²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

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
 다 하시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었다
 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우는 것’
 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슬
 픔을 뜻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느
 때 그런 슬픔을 느끼니까? 시험
 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 영적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
 낍니다. 회당장이 바로 그런 상태
 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
 서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라고 표현했습니
 다. 그때 주님께서 ‘울지 말라 죽
 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
 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진
 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슬
 퍼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
 람이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
 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자
 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기는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것
 이지요. 그때는 어떤 것이 진리이
 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명하

‘아이야 일어나라’

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밝은 내적 진리의 빛 안에 있지 않고, 어두운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곧 자는 상태, 잠이 든 상태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⁵³**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주님께서 ‘아이가 잔다’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는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자책이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친 자책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책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주는 자책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

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우리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회당장의 경우처럼 자포자기할 정도로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소리를 바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안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기가 잔다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⁵⁴**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회당장의 내면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애

‘아이야 일어나라’

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에 대한 애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55절에서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표현했습니다.

⁵⁵**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떡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가 일어나자 주님께서서는 ‘**아이에게 떡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떡을 것**’은 선을 뜻하고, ‘**마실 것**’은 보통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아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죽어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시키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책임을,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것**’을 먹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할 때, 자녀가 자라듯 진리에 대한 애정이 커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커질수록 그만큼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이에게 떡을 것을 주라**’ 명하신 것입니다.

⁵⁶**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47절에서 주님이 열두 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여인을 드러내셔서 주님을 만졌던 이유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소상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라' 하십니다. 둘 다 비슷한 상황인데 주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7절과 56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의 영어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가 주님께 손을 댄 이유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무리 앞에서 주님께 밝혔다.' 무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님께 밝혔다고 합니다. 또 56절 번역은 '주님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의 차이는 앞에서는 '말하기는 하되 주님께 하라'이고, 뒤에서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 주님께 밝히라 하는 것은, 병 고침 기적의 공을 주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공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

합니다. 말투와 표정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님께 말하라'는 말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 말하라'(reported to Hi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서는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말하지 말라'(charged them to tell no one)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열두 해 혈루증 여인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뜻한다면, 회당장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데 실패한 성직자를 말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말씀에서 '여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중에 자

‘아이야 일어나라’

아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같은 말씀에서 두 사람을 대비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인들은 누구나 자아를 잘 다스려야 하며, 특별히 성직자의 경우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잘 관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스펀텐보리 저, ‘계시록 해설’ 815번 글을 보면, 영적인 병을 고치는데 필요한 것은 첫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는 믿음에서 비롯된 통찰력 또는 영적 직관이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통찰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통찰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 또는 겸손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회당장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통찰력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자아가 강하다는 것과 내면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옷 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고침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찰력을 통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매일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눅12:32)

아멘

원본

2019-03-03(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12일(D6)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